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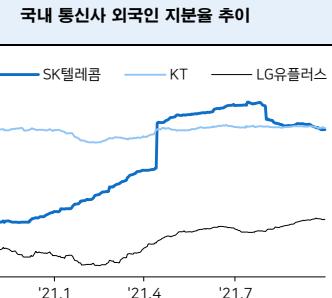
2021.11.1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1.2	-1.6	-7.2	-5.6	10.7	10.7	1.2	1.2	1.7	1.7	
통신업종	-2.0	-5.3	-1.0	4.1	8.7	8.7	0.8	0.8	3.8	3.8	
SK텔레콤	-0.8	-4.5	2.8	2.0	8.9	7.7	0.9	0.8	3.3	3.5	
KT	-3.9	-6.4	-9.8	7.6	8.0	7.4	0.5	0.5	5.3	5.7	
LG유플러스	-3.4	-4.3	-1.4	8.7	8.7	7.9	0.8	0.7	3.7	4.2	
AT&T	-0.9	-6.5	-9.9	-19.6	7.6	8.0	1.0	1.0	8.3	7.7	
Verizon	0.1	-1.9	-5.0	-8.3	9.9	9.9	2.7	2.3	4.8	4.9	
T-Mobile	-1.6	-10.0	-20.1	-12.9	46.1	34.0	2.1	2.0	0.0	0.0	
NTT	2.2	3.3	13.8	15.7	12.8	10.1	1.4	1.4	3.3	3.5	
KDDI	-4.4	-4.4	5.9	6.7	12.4	11.9	1.7	1.6	3.4	3.6	
Softbank	-6.7	-4.9	-9.8	-37.6	2.7	6.8	1.4	0.9	0.7	0.7	
China Mobile	-1.4	2.8	0.8	-7.2	7.1	6.7	0.7	0.6	7.6	8.2	SKT 44.2% (-0.2%p WoW, -0.5%p MoM)
China Unicom	-1.5	1.8	-4.3	-10.5	6.7	6.0	0.3	0.3	7.2	8.9	KT 44.2% (Flat WoW, -0.2%p MoM)
China Telecom	-2.5	5.8	-13.3	0.4	7.7	7.3	0.5	0.5	7.8	9.0	LGU+ 34.2% (-0.1%p WoW, +0.4%p MoM)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KT 44.2% (-0.2%p WoW, -0.5%p MoM)
KT 44.2% (Flat WoW, -0.2%p MoM)
LGU+ 34.2% (-0.1%p WoW, +0.4%p MoM)
LGU+, 외국인 지분율 감소로 전망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10월 마지막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8%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KT의 통신망 장애가 디도스가 아닌 네트워크 오류로 밝혀지면서 큰 폭의 주가하락 기록
과기정통부는 별도 대응반을 조성해 KT와 구체적인 원인과 보상 규모에 대해 논의 중
국내 기관은 LGU+, KT,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은 KT 순매수, SK텔레콤, LGU+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5일 LG유플러스가 3Q21 실적을 발표할 예정
LG유플러스는 3Q21 연결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2,715억원)에 부합할 전망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면서 기존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30%) 상향 가능성 존재
올해 DPS는 500원 전망, 내년 DPS가 700원까지 상향될 경우 배당수익률은 4.9%에 달할 전망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4	25	26 SK텔레콤 거래정지 시작 (-11월 29일 변경상장)	27	28	29	30
31	1	2	3	4	5 LGU+ 3Q21 실적발표	30

3 주간 뉴스

▶ 구현모 KT "약관 관계없이 적극적 보상 마련하겠다"

(ZD Net Korea)

- KT, 전국 통신망 마비 관련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협의 진행 중
- 이사회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공개될 전망
- 보상은 내부 이사회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향후 공개될 전망
- ⇒ 현재 법안은 3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 변경된 법안이 제도화될 전망
- ⇒ KT 통신 대란 이후 주가 ~% 하락,

▶ ADT캡스→'SK쉴더스'로 사명변경, "신사업 매출 5배 올릴 것"

(머니투데이)

- ADT캡스, SK쉴더스로 사명변경하고 사이버 보안과 융합보안 등 신사업 매출 5배 이상 확대 선언
- SK쉴더스는 자체 개발한 지능형 융합보안 플랫폼인 써미츠(SIMITS)도 공개
-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융합보안, 무인화, 케어 등을 2025년까지 전체 매출 중 60%까지 확대할 구상
- ⇒ 올해 기준 비중 42%, 매출 규모 2,200억원인 만큼 4년 뒤 1조 1,000억원 가량으로 성장 전망
- ⇒ 내년 IPO 앞두고 본격적인 몸값 높이기에 돌입, SK쉴더스는 이미 프리IPO와 투자유치 작업 진행 중

▶ '디지코' 속도내던 KT, '클라우드·IDC' 분사 계획.."일단 보류"

(디지털데일리)

- KT, CEO · 사장단 회의에서 클라우드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 부문 분사 추진 계획 잠정 중단
- 사장단 회의에서 KT 클라우드 · IDC 부문의 독자생존력 부족이 거론되며 분사 추진이 보류
- 독자생존이 어려운 시장환경 분사보다는 KT가 직접 주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 ⇒ 실제로 현재 국내 민간 클라우드시장은 글로벌 기업 점유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경쟁 심화 상태
- ⇒ 공공 클라우드 부문도 네이버가 악진하는 가운데 카카오까지 진출하고 있어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

▶ 정부, 5G 특화망 주파수 수시 할당...28GHz 활성화 계기 기대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 통신사 외에 다양한 기업에 5G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 수시 할당 시작
- 이번 5G 특화망 할당을 통해 5G 4.7㎓ 대역 100㎗폭과 28㎓대역 600㎗폭을 공급할 예정
- 28㎓ 대역은 할당대가가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 수준으로 낮게 산정 ⇒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은 5G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
- ⇒ SI,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등 무선 주파수와 5G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대

▶ 과기정통부 사전에 '실패'란 없다…통신3사 5G 28㎓ 어려워도 '강행'

(아이뉴스24)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28GHz 기지국 의무구축 정책 수정이 없다고 공식 입장 발표
- 통신3사가 공식석상에서 올해 의무구축 달성이 어렵다고 토로했으나 강행 기조를 유지
- 28GHz 대역은 3.5GHz 대역보다 빠른 대신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많은 기지국이 필요
- ⇒ 통신 3사가 연말까지 의무 구축하기로 약속한 28GHz 5G 기지국은 총 4만5,125대
- ⇒ 그러나 8월말 기준 28GHz 5G 기지국은 161대, 사실상 목표 달성을 불가능한 상황

▶ T모바일, 2022년 3월 3G 종료...다시 반발에 3개월 연기

(전자신문)

- T모바일, 당초 2022년 1월 1일로 예정했던 3G 서비스 종료 시점을 3개월 연기한다고 공지
- 현재 디시 네트워크가 T모바일 3G 망을 임차한 '부스트모바일' MVNO 서비스를 제공
- 디시 네트워크는 T-모바일 3G 종료시 50%에 이르는 가입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요구
- ⇒ T모바일은 Sprint가 보유했던 2.5㎓ 대역을 인수하며 5G 중대역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
- ⇒ 3G 종료 연기가 사업에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빠른 5G망 확대는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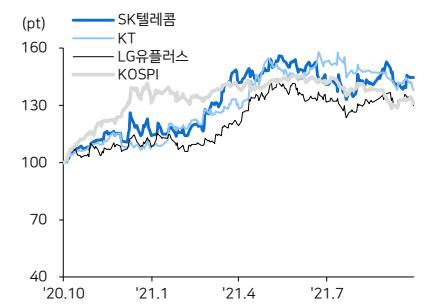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집약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09,500	19.0	16.8	17.4	1.3	1.4	2.2	2.5	4.9	5.1	5.7	5.5	10.3	10.9
	KT	30,500	6.8	21.1	21.7	1.3	1.4	0.9	0.9	4.5	4.6	2.7	2.6	7.1	7.3
	LG유플러스	14,350	5.3	11.8	12.3	0.9	1.0	0.6	0.7	2.9	3.1	3.6	3.5	9.5	9.9
미국	AT&T	25.3	180.4	167.1	156.6	30.5	31.9	23.6	22.1	52.3	51.1	6.8	7.0	13.5	12.6
	Verizon	53.0	219.4	133.4	131.5	32.4	32.8	22.5	22.2	48.4	49.2	7.5	7.4	29.8	26.1
	T-Mobile	115.0	143.6	80.8	82.4	7.3	9.3	3.2	4.3	27.2	28.7	8.0	7.5	4.8	5.5
일본	NTT	3,188	109.0	108.2	106.3	15.1	15.3	8.4	9.8	29.0	28.8	6.6	6.3	10.8	14.4
	KDDI	3,528	71.3	48.5	47.5	9.6	9.4	6.0	5.9	16.3	15.9	5.4	5.3	14.5	13.8
	Softbank	6,164	93.1	50.9	53.5	49.9	10.4	37.1	13.0	50.0	8.6	5.1	28.6	39.3	15.1
중국	China Mobile	48.3	127.0	132.0	139.7	18.8	20.1	18.0	19.3	48.2	50.7	1.1	1.1	9.7	9.9
	China Unicom	4.0	15.8	51.0	54.0	2.0	2.4	2.3	2.6	15.2	15.9	0.8	0.8	4.5	4.9
	China Telecom	2.7	58.1	68.1	73.1	5.3	5.9	4.0	4.4	19.9	21.0	2.7	2.5	6.6	6.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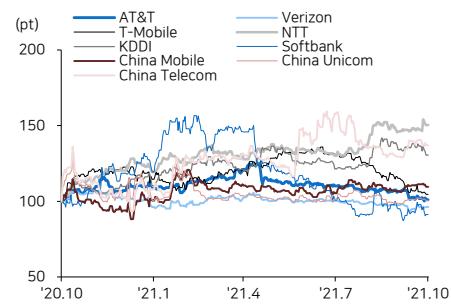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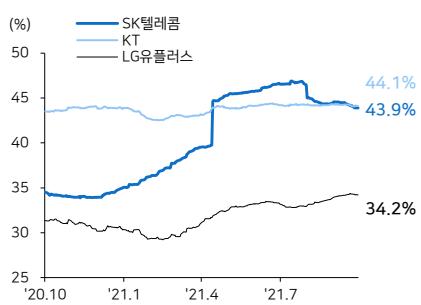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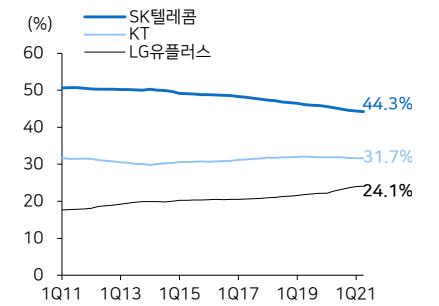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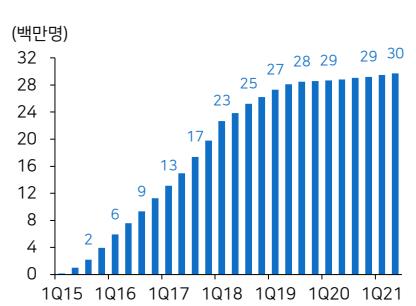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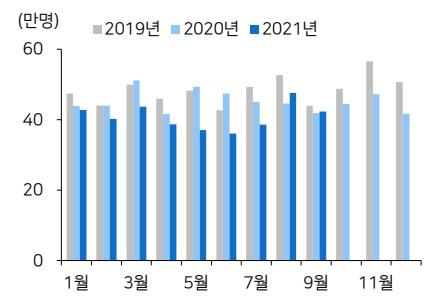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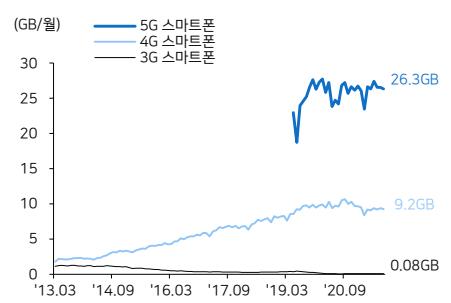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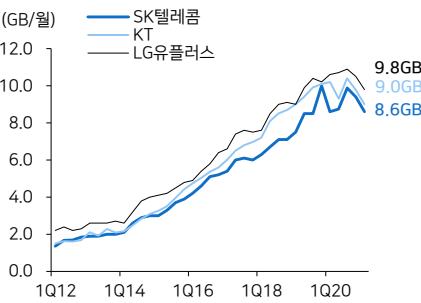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